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교육 미래학자 마크 프렌스키 (Marc Prensky)는 현재의 교육은 미래에 적합한 교육 형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라 21 세기가 요구하는 기량을 충분히 감당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미래에 닥칠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훈련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는 학습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실제적 학습 (authentic learning)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량 기반 교육과정 역시 교과의 핵심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서구권에서는 팬데믹 이전부터 학생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15 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법을 제정해 각 주(state)나 교육구가 자율권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적합한 교육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이후, 와이오밍 주를 제외한 49 개 주가 역량중심교육 (Competence Based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¹ 그 내용은 한 명의 교사가 교실 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 방식이 아닌 개별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목표를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정해진 수업 시간을 채우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을 숙달한 정도를 증명해야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생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이므로 학생 스스로 학습방법을 정하고 평가까지 진행하도록 한다. 결과가 아닌 과정 위주의 평가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사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동원하여 학습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끼리의 협업 학습을 디자인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교육과정, 즉 커리큘럼의 변화도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한 부분이다. 교육 미래학자 마크 프렌스키 (Marc Prensky)는 현재의 교육은 미래에 적합한 교육 형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라 21 세기가 요구하는 기량을 충분히 감당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² 그는 미래에 닥칠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훈련이 아닌

¹ US Department of Education,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https://www.ed.gov/essa?src=rn> (2021 년 4 월 18 일 검색).

² Marc Prensky, 미래의 교육을 설계한다. 허성심 옮김(서울: 한문화, 2018), 55.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는 학습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실제적 학습 (authentic learning)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량 기반 교육과정 역시 교과와 핵심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신학교육을 예로 들자면 '교수 중심의 지식 전달 교육 방법에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혼합학습법이 개발되고 있다.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라고 불리는 혼합학습 형태 중에서 가장 알려진 것이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방식이다.³

이러한 학습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창의력과 협동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을 중요시하면서 강의에 디지털 요소가 결합된 형태의 능동적 학습을 위한 강의실을 구축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들은 무선 시설을 확대하고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자연스러운 학습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으로도 학습자들이 연결되어 학습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배움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⁴

³ 김효숙,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대학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49 (2019): 3

⁴ Prensky, 35.